

월간 범어교회보 Vol. 443

늘 푸른 숲

2026. 5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십자가의 보혈 그 길을 따라

부활의 자리에 다시 서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다문화 팀

말씀으로 세워가는 가정

늘푸른숲, 40년의 나이테를 새기다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그리스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일관된 온유함



이지훈 담임목사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어로 온유를 의미하는 ‘Gentle’이라는 단어는 고대 프랑스어인 ‘Gentil’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Gentil’은 높은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계급 시대의 귀족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것처럼 힘이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로부터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Gentle’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능력을 통제하여 누군가를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세상은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과는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부드러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부드러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부드러운데 가족에게는 거친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부드러운데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강한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사람을 가려서 온유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대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신앙의 온유함이 가장 온전하게 발휘되어야 하는 장소는 가정입니다. 그 누구보다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자매와 부모님께 온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온유함의 진실함이 가족들에게 드러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하신 범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을 열며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 한 아이를 만났다.

함께 있는 내내 그 아이는 한 번도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눈을 마주치는 법을 잊은 듯했다.

오랜 시간 홀로 살아온 삶엔 ‘너’라는 존재가 비어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렸다.

봄은 세상에 가득했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닿지 못했고, 꽃향기도 머물지 못한 듯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다.

눈을 마주하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를 세우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교회도 주신다.

미성숙함으로 병든 가정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가정 속 부서진 마음들이 교회를 통해 다시 살아나도록.

나 또한 그 부르심 안에 있었다.

멍든 가슴으로 낯선 교회 문턱을 넘던 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앉아 있던 나를,

곁에 있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온기가 나를 둘러업고 하나님께로 이끌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엡 2:19)

따스함이 깊어지는 계절, 5월은 묻는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너’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머뭇거리는 손이 아니라, 먼저 내밀어 온기를 전하는 용기를 주시길.

스쳐 지나지 않고 곁에 머물러 그의 봄이 되어주는, 작은 봄빛 같은 사랑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도 나를 드린다.

나의 눈을 드리오니, 상처 너머를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드리오니, 아낌없이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며

삶을 드리오니, 작은 온기로 한 사람의 긴 겨울을 건너게 하는 당신의 가족으로 살게 하소서.

· 허윤정 집사(교회보팀)

2026 May | Vol. 443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 03 목양칼럼
- 04 5월을 열며 _ 허윤정 집사
- 05 목차
- 06 고난주간 | 선물 같은 새벽의 시간들 _ 박충휘 형제
- 07 고난주간 | 고난주간에 붙잡아 주신 그 은혜 _ 허은성 형제
- 08 고난주간 | 말씀과 기도로 여는 새벽 _ 윤사라 성도
- 09 부활절 | 사랑이 죽음을 이겼네 _ 김진한 집사
- 10 부활절 | “할렐루야”를 외쳐 부르다! _ 고범석 집사
- 11 부활절 | 부활의 자리에 다시 서다 _ 최요셉 집사
- 12 가정의 달 | 범어의 Oneness, 다문화가족의 ‘하나됨’ _ 이은미B 집사
- 13 가정의 달 |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다문화 팀 _ 카트리 니샤 성도
- 14 내 영혼의 찬양 | 영원한 나의 노래, 그 사랑 예수 _ 오성욱 권사
- 16 나의 한 구절 | 이에나 청년
- 18 가정의 달 |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가정, 파더와이즈 _ 박재민 집사
- 19 가정의 달 | 엄마의 마음을 보듬고 가정을... 마더와이즈 _ 이수현A 권사
- 20 가정의 달 | 말씀으로 세워가는 가정 흠빌더 _ 김은형 성도
- 21 가정의 달 | 순종으로 지어져 가는 가정 _ 송현동 집사
- 22 공감의 장 | 범어교회보 ‘늘 푸른 숲’ ... _ 박동웅, 박경희, 임병하, 이영선C
- 24 인터뷰 | 일상의 전성기를 걷는 평온한 동행 _ 정대성 목사
- 27 책 소개 | 산책(冊), 우리 같이 걸을까요?
- 28 행사단신 | 4월의 범어
- 30 범어 ‘인(人)’의 얼굴 / 범어범어
- 31 범어동정 / 행사 안내

제443호 | 발행일 2026년 5월 3일

발행인 이지훈 | 편집인 권오중 | 2026년 교회 표어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주소 42083 대구 수성구 청호로84길 71 | <http://pomo.net>

Tel. 053) 667 8800 | Fax. 053) 667 8888

선물 같은 새벽의 시간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십자가의 보혈, 그 길을 따라'라는 주제로 은혜롭게 드러졌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범어교회의 이니셜인 POMO의 정체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의 의미를 지혜롭게 풀어주셨습니다. Prayer 기도, Obedience 순종, Maturity 성숙, Oneness 하나됨으로 바라본 예수님은, 이루실 것을 미리 바라보신 믿음으로 자발적인 순종하심과 그 보혈의 피로 대속하심을 통하여 이웃을 향한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본 새벽의 귀한 시간을 성도분들의 시선으로 다시 돌아봅니다.



신앙이 생기고 성인이 되어 처음 특별 새벽기도를 참여했을 때는 큰 감동이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일이 특별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일이 되었다. 이번에도 숙제처럼 여기며 특새를 시작했다.

POMO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범어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조부모님부터 3대째 섬기던 교회를 떠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아직도 언제 돌아오나고 연락을 주시는 교회의 어른들,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인 청년들은 나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준다. 그런데 이번 특새를 통해서 범어교회가 나의 교회라고 인식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교회의 방향성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주신 말씀의 시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교제의 시간도 큰 역할을 했다. 기도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짧은 시간 주고 받은 반가운 인사, 출근에 쫓기면서도 함께 즐긴 식사시간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 장벽을 조금씩 허물게 했다.

처음 범어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낯선 환경과 사람들을 보며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많이도 기도했다.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잊고 있었던 나의 기도 제목. 부족한 마음이었지만 '공동체에 동참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지킨 나에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

• 박충휘 형제(청년2부)

고난주간에 붙잡아 주신 그 은혜

저는 재수를 준비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게 맞을까?’라는 의문 중에 제가 섬기고 있는 호산나 찬양팀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서 개회 찬양을 맡게 되었는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며 특새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사정으로 3일밖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제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늘 슬픔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라는 사실에 집중하게 하시고, 제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난이라고 여겼던 시간들 속에서도 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그 과정 자체가 가장 선한 길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수요일 설교에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욕심이 앞서 있었고, 그 욕심이 어느새 제 마음의 우상이 되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두 손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며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 걱정과 불안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끌려 가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두 손으로 하나님만을 붙잡으시라는 권유를 올려드립니다.

• 허은성 형제(청년1부)

말씀과 기도로 여는 새벽

매년 교회에서 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직접 참여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큰 결단보다는 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새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작고 부족한 저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지나온 시간과 겪어온 여러 고난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특히 고난 속에서 드렸던 기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의 뿌리가 마른 것처럼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열매로 응답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의 제 삶 속에서도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특새를 통해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루의 시작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먼저 만나는 삶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이 바쁜 일상 속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챙기고 분주하게 보내는 시간이었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변화가 저의 한 주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 주간의 삶 또한, 크고 작은 모든 일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되었고, 상황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도 점차 변화되어,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매일 기쁘게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윤사라 성도(요한침례회)

사랑이 죽음을 이겼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선율 뒤에 숨겨진 찬양대원들의 헌신과 땀방울을 기억합니다. 거룩한 찬양의 제사로 주님께 영광 돌린 대원들의 노래와 연주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주님께는 기쁨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의 '부활절 찬양의 밤'은 유난히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총 10곡의 찬양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벨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샬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각기 다른 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하나의 거룩한 고백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은 그 자체로 부활의 기쁨을 닮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 틈을 배려로 채워가는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지휘자님들과 대장님들, 실무를 맡은 이들과 함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연습 일정을 조율하고, 마지막 리허설을 앞두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과정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연락 속에서 나눈 대화들, 지휘자님들의 음악적 고뇌, 대원 한 명 한 명을 살피는 대장님들의 세심한 사랑, 그 모든것이 소통의 폭을 자연스레 넓혀주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10곡의 찬양이었

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 번의 조율과 양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화음이 쌓여 갔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낼 수 없는 웅장한 연합의 목소리처럼, 이번 부활절 찬양의 밤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준비한 이 노래가 부활의 참된 의미를 세상에 전하는 빛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원들과 지휘자님들, 대장님들, 찬양위원회 장로님, 간사 목사님, 임원들, 그리고 방송실까지, 하나로 뭉쳤던 소중한 시간들과 따뜻한 유대감이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히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한 집사(찬양위원회 총무)

“할렐루야”를 외쳐 부르다!

만개한 벚꽃이 흩날리던 아름다운 부활절, 예사모 형제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대구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더없이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사회자 목사님의 고백을 시작으로 “할렐루야” 대구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주제로 김인중 목사님(안산동산교회)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생명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며 맺은 인생의 결실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6·25 한국전쟁 중에 태어나셨고 전쟁과 가난, 질병으로 위로 여섯 형제를 장티푸스로 잃으셨고, 부모님도 모두 여의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간 날이 구원받은 날이기에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목사님을 경기도 안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어둡고 척박한 그 땅에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탈북자들이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갈 곳 없는 그들, 불쌍한 영혼을 보살피라. 억울하지 않도록 지켜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부흥과 수많은 목회자의 세움,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허브로 발전한 안산이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나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는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일이 주님이 주신 선물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매년 맞는 부활절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고전 2:4)”라는 말씀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 고범석 집사(예사모)

부활의 자리에 다시 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만 많고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마음 한편에는 무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현장에 들어선 순간, 그 생각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웅장한 분위기보다 먼저 느껴진 것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이 자리를 준비해 왔다는 진심이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단순한 노래를 넘어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뜨거운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이어진 기도 시간에는 청년과 장로, 목사님이 함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배가 줄어들고 분열과 갈등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다시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예배의 설교 말씀을 통해 제 신앙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흐려졌던 중심을 다시 붙잡게 되었고,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매일의 자리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5절)

• 최요셉 집사(디모데청년회)

범어의 Oneness, 다문화가족의 ‘하나됨’

오래전 다문화센터를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의 부탁으로 한 두 달 정도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우리 가곡과 가요를 배워 무대에서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반주를 맡았습니다. 한 스무 명 남짓한 이주여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 조금 낯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인지 그 공간에서는 오히려 제가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지요.

그 기억을 가슴 한편에 가진 채 시간이 흘러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 권사님 권유로 다문화 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팀원 한 명이 한 가정을 섬기면 된다고 하셔서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제가 섬기게 된 가정은 사정상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관찰자처럼 팀원들이 섬기는 모습만 지켜보는 시간도 있었지요. 관계 맺기가 잘 되어 있는 가정을 보면 팀원들이 친정어머니처럼 챙겨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마다치 않고 달려가시고, 계속 연락하면서 힘든 일은 없는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제게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봄가을에는 힐링 나들이도 함께하고 명절과 성탄절에는 선물도 나누면서 관계를 이어오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뜰히 섬기는 우리 다문화 팀원들이야말로 POMO의 O(=Oneness), ‘하나됨’을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문화 팀을 짧게 표현하자면 디딤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낯선 이국땅에서 기댈 곳 하나 없는 이주민들에게 그들이 다가오기에 교회 문턱이 너무 높지 않게, 그러면서도 단단히 담고 들어설 수 있도록 돕는 범어의 디딤돌이 되어 다문화 팀을 더욱 섬기기를 원합니다.

• 이은미B 집사(다문화 팀원)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다문화 팀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카트리 니샤입니다. 남편을 따라 범어교회에 출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문화도 다르고 한국말도 익숙하지 않아서 찬양과 설교의 자막을 받아적고 그 내용을 저의 모국어로 번역하며 이해했어요. 이후에, 이한샘 집사님이 한국어를 같이 공부하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천천히 습득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어 성경으로 읽고 공부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려고 집사님들께 열심히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문화 팀이 있는데 예배 마치고 같이 가보아요.”라고 권유하셔서 범어교회에 다문화 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 주일에 대예배를 마치고 다문화 팀 예배도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타국에서 오신 분들을 알게 되었고, 좋은 일과 힘든 일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많은 집사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에도 감사드릴 수 있어서 믿음에 열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문화 팀에서 열심히 가르쳐주신 덕분에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국적 취득 시험을 통과했어요. 대학교에 입학할 때도 다문화 팀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대학 4학년 때, 가정 상황상 딸 재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는데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재아를 돌봐주셔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졸업 후에 취직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딸 재아가 유년부에서 잘 양육 되도록 제가 배운 대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범어교회에서의 10년을 돌아보며 다문화 팀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마다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생의 기다림을 배우게 되었어요. 다문화 팀에서는 이방인인 저를 한 가정의 아이처럼 일상 생활, 교회 생활, 대학 생활, 아이 양육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저도 범어교회를 통해 받은 복음을 다른 분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현재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제가 받은 은혜를 저와 같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 카트리 니샤 성도(한국명: 하연아)

영원한 나의 노래, 그 사랑 예수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인생의 황혼 녘에 서 있지만, 초등학교 6학년 첫 노방전도를 받은 8.15 광복절 그날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생전 처음 교회 문턱을 넘었던 그 주일은 제 신앙의 고귀한 첫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우리 동네에는 토요일이면 늘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던 ‘교회 양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토요일이 아니었음에도 그분은 자전거 벨 소리를 울리며 개울가에 앉아 있던 제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몇 마디 다정한 대화 끝에 그분은 주일 아침 8시까지 교회에 오라는 약속을 받아내셨고, 확답을 들은 뒤에야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일 아침 8시, 서둘러 교회로 향했습니다. 전도사님 내외분께서는 오래 기다리던 귀한 손님처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예배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셨고, 그 방에는 감자 된장국과 밥 세 그릇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초라한 밥상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얻은 듯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어린 저에게 그 모습은 적잖은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그 방을 가득 채우던 따스한 공기와 다정한 눈빛, 그날의 온기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가슴 한구석에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처음 맞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를 넘게 한 첫 멜로디

따뜻한 식사를 마치고 전도사님께서 제 곁에 앉아 찬송가 한 곡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배운, 내 인생의 첫 찬송이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배운 그 짧은 노랫말과 선율이 제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버팀목이 될 줄이야.

세월이 흘러 온 나라가 휘청이던 IMF 외환위기 시절, 저의 삶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진 한복판에서, 불현듯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그날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전도사님 방에서 울려 퍼졌던 그 찬송을 부르며,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삶의 조건은 무너졌을지언정, 저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은 결코 저를 놓지 않으셨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소녀의 귀에 들려왔던 그 다정한 음성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와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다시금 걸음을 떼게 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찬송의 은혜

사실 저는 지금도 노래에 자신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음악 시간이 부담이었던 것처럼, 여전히 제 목소리는 서툴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시선도 없는 자리에서 홀로 드리는 찬양의 시간은 제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내뱉는 저만의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때로 삶의 무게에 눌려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메말라 갈 때면, 성령께서는 먼저 제 입술에 찬송의 고백을 실어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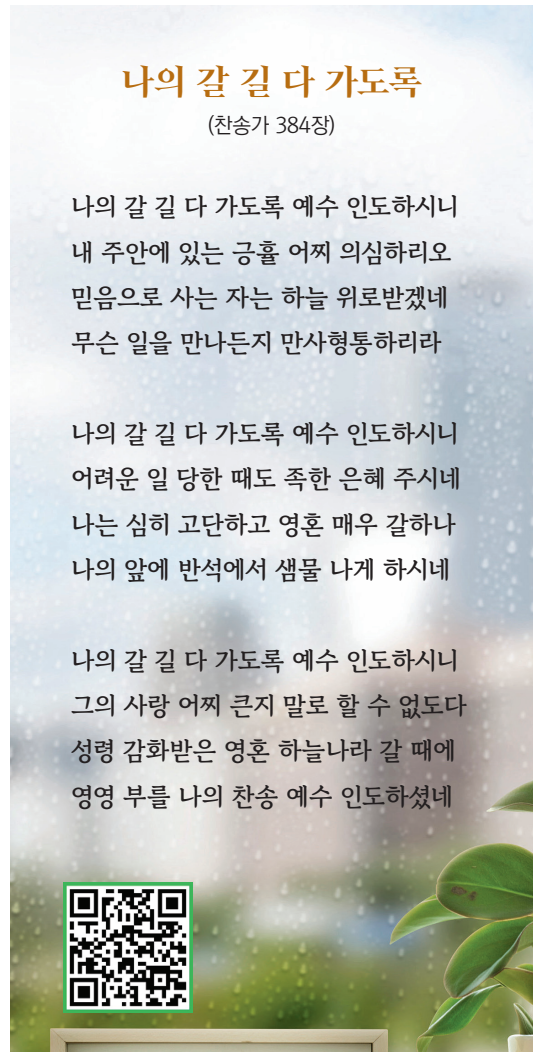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닫혀 있던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메말랐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나의 노래

기도의 응답이 선명하게 다가올 때도, 삶의 무게에 눌려 마음이 깨어지고 괴로울 때도, 주님은 언제나 제 입술에 찬양을 두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노래는 참으로 부끄럽고 보잘 것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그 부족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찬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인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저는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 오성욱 권사(1여전도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를 위해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인간이 완전히 실패했어도, 다 잘못했어도, 다 망쳐 났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다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일상에서 만난 언약/ 서창희」



연약한 나의 모습에 낙심할 때,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원하지 않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기도 모임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호작질’이라 부르던 나의 취미들은
새 가족들의 관심사와 맞닿아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열게 만드셨고,
또 나의 아픔은 진심으로 친구들을 위로하며 품을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내가 의미 없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실수, 나의 좌절, 나의 작음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자량이 되고 나의 실패는 간증이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예나 청년(청년1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가정, 파더와이즈

저는 지우, 지안이의 아빠입니다. 처음 ‘파더와이즈’ 프로그램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망설여졌지만, 팀장 집사님이 “좋은 아빠 되어 봐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프로그램은 1일 차부터 5일 차까지 스스로 교재를 학습하고, 주일 모임에서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다음, 조별로 책 리뷰와 주제별 나눔, 중보기도로 마무리하는 순서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나눔일 수 있는데 나중에는 육아 선배님들의 조언이 기다려졌습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질문에 답을 해보고, 함께 생각을 터놓다 보면 성경이라는 기준이 세워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섯 살인데 목욕을 시키거나 밥을 먹일 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말 안 들을 거야!” 고집을 부려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언성이 높아집니다. 훈육한다고 혼내면 “내가 아빠 이 노~움 할 거야!”

이렇게 반항도 곧잘 합니다. 애들이 몇 살이 되면 말을 잘 들을지, 언제쯤 편해질 수 있을까 고심하곤 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자녀의 관심사를 알아 오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지우와 김밥을 먹다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지우는 대답은 하지 않고 김밥 속 재료를 하나씩 빼서 관찰하다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아빠, 이것은 뭐야?” 단무지, 시금치 따라 말하면서 만

지작거리기도 하고 유심히 살펴봅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지, 놀이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방해받는다고 생각하겠구나’ 이후로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면 협조적인 자세로 돌아와서 서로 편안해졌습니다.

아이가 아빠 말을 안 듣는다고 혼내기 전에 아빠가 아이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것과 어린 자녀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파더와이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열매로 대답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 박재민 집사(베드로청년회)

엄마의 마음을 보듬고 가정을 세우는 시간, 마더와이즈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아이와 남편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마더와이즈는 바로 그런 고민을 가진 전 세계 엄마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회복을 경험하는 기독교 여성 사역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과정을 다룹니다.

- **지혜 (Wisdom)** :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세우는 성경적 원리를 익히기
- **자유 (Free)** : 과거의 상처와 쓴 뿌리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 **회복 (Restore)** :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평안을 찾기
- **동행 (Together)** : 임마누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

제가 마더와이즈를 처음 접하게 된 게 벌써 10여 년이 지났네요. 2014년 스텝 모임을 한 후 강좌를 오픈한 기억이 지금까지 생생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에 관한 많은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제 머릿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되고 체계가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더와이즈 모집 공고의 대상에 보면 항상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여성’이라고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가정을 그리고 나 자신을 세우고 싶다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와 가정을 세우는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말씀에 있음을 절실히 느꼈고, 마더와이즈 참여 이후부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더와이즈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자신과 가정을 세우는 여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이수현A 권사(마더와이즈 팀장)



말씀으로 세워가는 가정 홈빌더(Home builder)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가오는 8월, 소중한 새 생명과의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김은형, 김한별 부부입니다. 저희는 대구에 신혼집을 마련하며 범어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로 결심했고, 작년 여름부터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무사히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현덕 목사님의 추천으로 신혼부부 공동체인 요한청년회에 소속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들로 구성된 요한 공동체는 비슷한 연령대와 공통 관심사를 가진 지체들이 모여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공동체를 통해 ‘홈빌더 부부시리즈-서로 친밀한 부부’라는 교재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홈빌더’는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는 법’ 등 부부생활 관련 주제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홈빌더를 시작하기 전에는 결혼생활과 신앙을 별개 영역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교재를 통해 지체들과 마음을 나누며, 결혼생활은 신앙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서 배우자와 함께 일궈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가장 좋았던 점은 단원의 마지막에 있는 ‘부부 데이트’ 과제였습니다. 데이트에서 서로의 과제를 나누며 배운 내용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부의 사랑과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점이 참 감사했습니다. 어느덧 교재 절반 과정을 지나온 지금, 앞으로 저희 부부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더 성숙한 가정을 이뤄갈지 무척 기대됩니다.

• 김은형 성도(요한청년회)

순종으로 지어져 가는 가정

안녕하세요. 베드로 청년회의 송현동 집사입니다. 부부 흠빌더 교재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들을 짧게 나누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신혼 때 1권을 했었는데, 즐았고 새로웠던 기억이 있어서 2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2권의 제목은 '서로 친밀한 부부'입니다.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신혼 때는 각자가 가진 시간이나 에너지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맞춰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면서 육아에 대한 스타일이 너무 달랐음을 알게 되었고, 본격적인 어려움들이 나타났습니다.

흠빌더 2권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하고, 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미 머릿속에는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고립되고, 육아를 하는 환경에서 제가 하나가 되어주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남편인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가정에는 불화가 생기고, 아이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와 육아에 관한 생각이 달라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아내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실행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변화되어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저와 한 몸이 된 아내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흠빌더 교재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제가 몰랐거나 혹은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발견해서 영육 간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송현동 집사(베드로청년회)

범어교회보 '늘 푸른 숲', 40년의 나이에 새기다

교회보 4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의 손길,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함께 걸어온 귀한 여정을 돌아 봅니다. 지난 40년 동안 교회보에는 신앙 성장과 감사, 그리고 겸손한 섬김의 삶이 깃들여 있습니다. 교회보가 소중한 영적 통로가 되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며 하나님의 역사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오래도록 이어지길 기도하며, 편집장으로 섬기셨던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 40년의 숲길을 함께 걸어봅니다.

말씀의 씨앗, 세월을 건너 열매가 되다

봄바람처럼 조용히 시작된 한 줄의 소식이 어느덧 사십 해의 시간을 건너, 깊은 뿌리와 넓은 그늘을 가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1986년 5월, 그 시절, 종이 위에 새겨지던 글자들은 사진식자의 따뜻한 온기로 태어났고,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기도의 숨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범어 선교'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파송된 리응주 선교사님과 마음을 잇고, 소식과 기도를 나누던 그 작은 종이는 점점 자라 '범어교회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품을 넓혀 갔습니다. 교회보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여, 인쇄를 맡겼던 경북인쇄소 사장님이 지면 속 설교 말씀을 읽고 주님을 영접하여 교회의 일꾼이 된 기적도 있었습니다.

사십 년이 지나, 우리는 또 다른 시간의 문앞에서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은혜, 더 많은 영혼을 향해 지경을 넓혀 가야 할 때입니다. 범어교회 120년의 역사 위에, 교회보 40년의 은혜를 얻으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작은 종이가 한 영혼을 살리는 씨앗이자 한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기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소망합니다.

• 박동웅 장로(1986년 창간호~1990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기쁨

교회보 창간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86년 5월 25일(주일) 창간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세월을 견뎌온 것만도 장한데, 매년 성장해 온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은혜롭게 사역을 이어 가시는 모습은 우리 존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기엔 충분합니다.



저의 교회보 시절을 돌아봐도 원고를 모집하고 마감을 지키며 인쇄하는 한 달 한 달이 힘들기도 하였지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누구보다 먼저 <날것>으로 접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보에 실린 성도들의 소중한 간증문을 책(나의 기쁨 나의 사랑, 2002)으로 출판하게 된 일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바라기는 후배들의 아름다운 손길로, 좋은 기회에 2차 간증집이 발간될 날을 기대하며 교회보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박경희 장로(2002년~2004년)

뜰에서 배운 것들

산기슭에 위치한 교회의 특성상 여러 식물들과 함께 자리 잡고 있을거란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던 (이미-知) 연재 글이 떠오릅니다. 1월 남천부터 12월 나목(裸木)까지, 이렇게 많은 수종이 사계절 교회와 함께 한 줄은 미처 몰랐었습니다. 식당 옆 비탈에서 할미꽃을 발견했던 경탄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고개 숙이고 부끄럽게 핀 화초의 겸손이 120년 성상을 지켜온 우리 교회와 닮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꽃은 내가 발견해 주기 전에 ‘이미’ 오래 피어 있었고, 그것을 자각하는 ‘知’의 순간에 경계를 넘어 내 안에서 하나의 형상(이미지)으로 새겨지는 경험은 참 특별했습니다. 교회보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40년 동안 누군가의 기도와 수고로 한 페이지씩 쌓여 온 지면이, 읽히지 않는 순간에도 말씀의 뿌리처럼 우리 공동체 곁에 조용히 머물러 있다가 독자의 망막과 만나는 순간 비로소 고유의 향을 품어내는 과정과 닮았습니다. 앞으로 이 지면이 제 향을 묵묵히 품어내는 나무처럼, 오래 남길 바랍니다.

• 임병하 장로(2015년, 2023년)

‘늘 푸른 숲’ 터에 켜켜이 쌓인 그분의 시간들

범어교회보 40주년을 둘러보기에는 아직 연수도, 자격도 미치지 못하는 이가 감히 눈을 들어 이 푸른 숲을 바라봅니다. 범어의 소식지로 펼쳐낸 40년의 세월만큼 다채로이 채색된 색조들 사이에서, 바라보는 각도마다 다르게 산란되는 아름다운 빛들이 눈에 가득히 들어옵니다. 이 색과 빛에는 성도들의 기쁨과 환희, 위로와 감동의 간증들이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빛을 양분 삼아 자란 나무들이 이제는 장성하여 향기 가득한 ‘숲의 소리’가 되어줍니다. 그 이야기들을 건네어 주는 편집위원들의 수고의 두 손에 포개신 이 숲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합니다. 작은 이야기들의 조각을 모아서 엮으시고 한 그림으로 확장하시는 분이 예수님 이심을 매 순간 확인합니다. 글이 아닌 여백에서조차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한 권의 교회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우게 하실 때마다, 흘러가게 하시고 그렇게 달을만한 곳에 닿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읽어 내려 주실 것을 고대하며 낮은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 이영선C 집사(2026년)

40th
Anniversary
POMO newsletter

일상의 전성기를 걷는 평온한 동행

범어교회 교역자실의 중심에서 묵묵히 행정의 소임을 다하는 정대성 목사님, 감정의 기복 없이 늘 한결같은 미소로 성도들을 맞이하는 그에게서는 깊은 호수 같은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자녀 넷을 둔 다둥이 아빠로, 때로는 치열한 생활인으로, 이제는 교회의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 목사로 살아가는 정대성 목사의 진솔한 삶과 신앙 이야기를 열다섯 번째 교회보 인터뷰로 담았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자족하는 마음과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Q. 목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가족 소개와 함께 목사님의 어린 시절 신앙 환경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내와 사춘기에 접어든 두 아이, 그리고 이제 막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한 셋째와 넷째, 이렇게 4남매와 함께 복직이는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 뿌리는 시골 목회 현장에 있습니다. 아



버지는 군위에서 20년 넘게 시골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사실 아버지는 고아원 출신이세요. 어린 시절의 결핍을 신앙으로 극복하시고 독하게 성경을 읽고 필사하시며 믿음의 가문을 일구신 분이죠. 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부친의 확고한 믿음과 끈기를 보고 자란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비록 저는 아버지처럼 독하지는 못하고 무뎠던 성격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그 시절 삶의 뒷모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Q.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A. 사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목회자로 서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셨죠. 저 역시 목회 현장의 고단함을 가까이서 보았기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컸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고등학교 1학년 겨울수련회 기도 중에 비로소 제 입술로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

했으니 이제 이 길을 가야겠다’는 단순하고도 무던한 결단이었지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길을 후회하거나 흔들려 본 적은 없습니다. 평택대학교 신학과를 거쳐 지금까지 이 소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Q. 사모님과 만남, 그리고 네 자녀를 키우며 겪은 다동이 아빠로서의 고충과 은혜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A. 아내와는 대학교 찬양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아내는 제 사역의 가장 훌륭한 조연자이자 동역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신기하게도 연애 시절부터 자녀를 네 명 낳고 싶다는 공통된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니다. 파트 사역자로 일하며 사례비 70~80만 원으로 생활하던 의정부 시절은 참 고달팠습니다. 오래된 빌라 4층을 아기띠를 메고 오르내리던 아내에게 늘 미안했죠. 재정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절도 있었고, 졸음운전을 하며 사역지를 오가던 위험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넷째를 가졌을 때는 주변에서 경제적 걱정 때문에 만류하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겪는 사춘기의 갈등 조차도, 이제는 저와 아내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교육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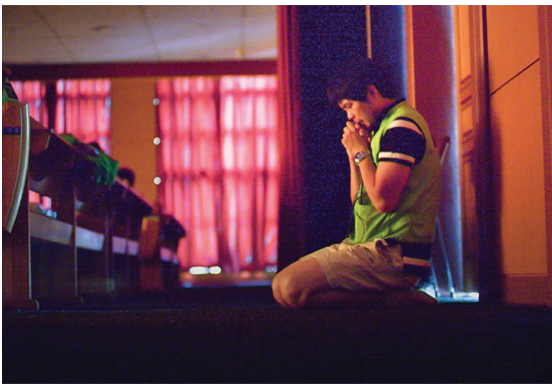


Q. 범어교회와 연결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이 또한 하나님의 ‘기준’이 만든 은혜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학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설교와 찬양에 특출난 재주가 있는 사역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그저 평범하고 무던한 사역자였죠. 4년 전, 사역지를 옮겨야 할 시점에 여러 교회에 지원했지만 다 떨어지고 오직 범어교회만 연락이 왔습니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자녀 넷을 키우는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은 관계를 잘 맺고 책임감이 강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뽑아주셨다고 해요. 제가 단점이라 생각했던 부분이 범어교회에서는 장점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담임 목사님을 뵈며 정말 많이 배웁니다. 네 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목회의 깊이 면에서 존경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Q. 꿈드림 예배팀(성인 발달장애인 예배팀) 사역을 오래 섬기셨는데, 그곳에서 느끼신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A. 범어교회 부임 후 사회봉사위원회 소속 발달장애인 예배팀을 3년간 섬겼습니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15년 넘게 해왔기에 처음에는 쉬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이 설교는 우리 친구들에게 와닿지 않아요”라는 집사님의 조언을 듣고 충격을 받기도 했죠. 그때부터 이미지와 반복 그리고 단순함을 활용한 설교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메시지보다 마음으로 닿는 이미지 한 장이 그들에게 더 큰 복음이 된다는 것을



배우며 저의 목회적 지경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Q. 현재 행정목사라는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시나요?

A. 김용국 목사님이 사임하신 후 갑작스럽게 행정목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길은 아니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 교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담임목사님과 교역자 사이 그리고 교회와 당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소임입니다.

120주년 기념사업 등 큰 행사들을 체크하고 조율하며 핑크가 나지 않도록 살피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무뎠던 성격 탓에 큰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오래 머무는 교회는 그만큼 담임목사님과 관계가 건강하다는 증거인데, 저는 지금 범어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Q. 마지막으로 범어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담임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기도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그리고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더군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행정목사로서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며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5월의 푸른 숲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 정리 교회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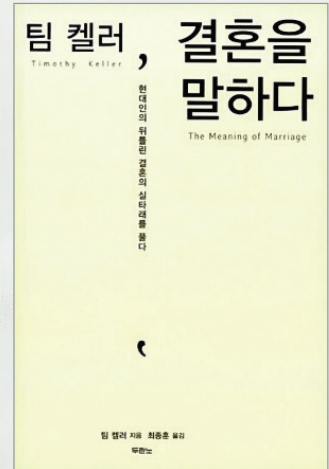
우리 같이 걸을까요?

산책(冊)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팀 켈러, 캐시 켈러, 두란노, 2014)

어느샌가 결혼이라는 제도는 비합리적이고 의무와 책임만 뒤따르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포기한 그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있는지 잘 안다. 결혼이란, 결혼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을 발견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이다. 하지만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 줄 수 없다. 하나님께 충분한 공급을 받아야 하고 그 충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이 받고자 하는가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가를 먼저 따진다. 이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기꺼이 잃을 수 있을까? 얼마나 큰 자유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까? 소중한 시간과 감정, 재물을 얼마나 많이, 그것도 흔쾌하게 상대를 위해 쓸 수 있을까?” 본문 中



폭풍 속의 가정 (러셀 D. 무어, 두란노, 2019)

사랑으로 시작된 가정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깊은 상처가 시작되는 곳이 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가정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온전한 가정과 아름다운 결혼을 만들어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몸 된 교회의 관계를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십자가를 살아내는 일이다.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한다면, 그 가정은 흔들릴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가족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원천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공포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십자가도 그렇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의 무시무시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및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본다. 우리의 가정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항상 고통에 취약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 기쁨과 고통은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도록 한다. 바로 십자가다.” 본문 中



4월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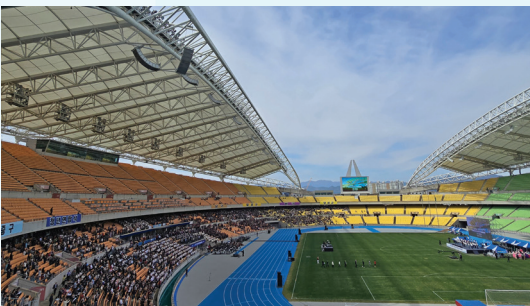
이 외에도 많은 행사가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pomo.net>



3월 30일(월)~4월 3일(금) 오전 5시 30분에 예루살렘채플에서 고난주간 갯세마네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3일(금) 오후 8시 2층 예루살렘채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절 연합 찬양의 밤” 시간을 가졌습니다.



5일(주일) 오후 2시 30분에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지역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12일(주일) 1~4부 주일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19일(주일) 오후 2시 30분에 3층 아레오바고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송요한 협력 선교사의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일(주일) 오후 2시 영어예배부 워십팀이 수성못에서 버스킹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5일(토) 사회봉사위원회 다문화팀의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영천 자천교회와 보현산땀 출렁다리, 한의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범어‘인(人)’의 얼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난 4월,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영어예배부 워십팀의 환한 미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가요!



범어범어(泛魚凡語)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며 기독교인의 윤리는 ‘감사’이다(F. F. 브루스)”

양육학교 중

“not yet,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도 반드시 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일 설교 중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알 수 없는 것을 붙들지 말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

주일 설교 중

“온전한 순종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리딩지저스 81일차

“당신이 주님을 부를 때, 당신의 혀가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이 부르는 것입니까?(어거스틴)”

새가족 목자 모임 중

“은혜가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은혜가 사라지고 의무만 남으면 날카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사역훈련 중

범어동정(泛魚動靜)

한 달 동안 범어인의 상황과 이동

■ 결혼

- 성명호 집사(송선화 집사)의 아들 성지훈 군 : 4월 12일(주일) 라움아트센터 4층 체임버홀(서울 역삼동)
- 최승일 군과 김신애 양 : 4월 18일(토) 아리아나호텔
- 이영찬 집사(이정숙C 권사)의 장남 이홍인 군 : 4월 18일(토) 더메리든 메리든홀(분당)

■ 출산

- 이상은 집사(어효성 집사) 득남 : 3월 30일(월)
- 김민지 성도(민재웅 성도) 득남 : 4월 1일(수)
- 박진향A 성도(정성진 집사) 득남 : 4월 8일(수)
- 김나연B 성도(나재길 성도) 득남 : 4월 12일(주일)
- 이다겸 집사(양현성 집사) 득녀 : 4월 20일(월)

■ 공연

- 대구크리스찬과이어 특별콘서트 '봄, 하늘에 울리다' : 4월 4일(토)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출연 : 전민주 사모, 강미예, 서영은, 구영은, 권영민, 박건도)
- 경북여자고등학교 개교100주년 기념음악회 : 4월 11일(토)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지휘 신미경 은퇴협동권사)
- 독창회 | 류진교 집사 '소프라노 류진교 리사이틀' : 4월 14일(화)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
- 정기연주회 | 이창호 협동안수집사(할렐루야찬양대 지휘자) 안동시립합창단 2026 DCH 합창페스티벌 초청공연 4월 21일(화)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5월 교회 행사 안내

- 1일(금) : 목자기도회
- 3일(주일) : 어린이주일/오후예배 가정예배로 대체
- 10일(주일) : 어버이주일
- 17일(주일) : 스승의주일/사봉위 주관예배(오후)
- 21일(목) : 경로잔치 야유회
- 22일(금) : 120주년 초청설교 이진영 목사
- 24일(주일) : 성령강림절/정기당회(오후)
- 25일(월) : 당회장배 풋살대회
- 29일(금) : '리바이벌2026' (강사 장영일 원로목사)
- 30일(토) : 새가족 컨퍼런스
- 31일(주일) : 온세대 연합예배/세계선교위 주관예배

5월 주일학교 행사 안내

- 3일(주일) : 유치부 야외예배, 유년부 도시락 Day, 소년부 봄운동회, 영어예배부 Happy Children's Day, 고등부 신앙특강(김지윤 협력선교사)
- 9일(토) : 고등부 교사리트릿
- 10일(주일) : 영아부 조부모 초청예배
- 10일(주일), 17일(주일) : 중등부 전도축제
- 10일(주일), 16일(토), 17일(주일) : 고등부 VIP Party
- 17일(주일) : 초등부 예닮운동회
- 23일(토) : 수성노회 찬양경연대회(성덕교회)
- 31일(주일) : 온세대 연합예배

편집장 | 이영선C

부편집장 | 신규식, 여경진

편집위원 | 김동영, 김성애B, 김현성, 서정주
손명진, 이미경C, 이상진, 이창권
조성희A, 허윤정

사진 | 미디어위원회

디자인 | design studio Jabez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범어교회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범어교회보 | 1986. 5. 25 창간

범어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주일학교 문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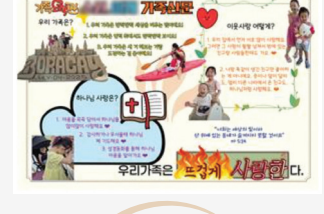
범어 가족신문 만들기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이야기> · 짧은 영상 만들기 <동영상으로 남기는 120+1>

범어교회 설립 1906년 9월 9일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 목적 : 범어교회 120주년을 기념하며,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토록 함께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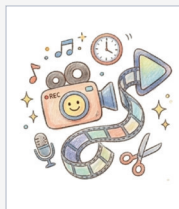


행사1 | 범어 가족신문 만들기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이야기>

- 참가 대상 : 영아부~고등부
- 내용 :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 에벤에셀 :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도우심에 대한 내용(사진, 그림, 글 등)
 - 여호와 이레 :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가족소망나눔(사진, 그림, 글 등)
- 접수 기간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제출 : 각 부서 서기부
- 용지 지급 : 참여를 원하는 가정마다 각부서 서기부에서 A2 용지 한 장씩 지급해 드림

행사2 | 짧은 영상 만들기 <동영상으로 남기는 120+1>

- 참가 대상 : 중등부, 고등부 (가족신문과 동영상 중 선택)
- 내용 :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의 주제에 맞는 다양한 내용들
- 동영상 길이 : 1분~2분
- 접수 기간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제출처 : nuris1129@hanmail.net / 카카오톡 : 010-5668-1125 (*카톡 옵션 '고화질' 로 보내기)



• 시상 : 각 행사 부서별 작품상, 연출상, 아이디어상, 디자인상, 작문상 선정하여 선물 지급
*참여하는 모든 가정에 참가선물 지급

*제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각 반 단톡방에 전달된 <제작안내 동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제작안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